

제주의 근대 인물유산으로서 석주명*

윤 용 택**

국문요약

오늘날 각 지역과 국가뿐만 아니라 유네스코에서는 가치 있는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전승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두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유산 유형분류 방식에 따르면, 한 시대나 사회의 귀감이 되는 인물 자체는 유산으로 지정할 수 없다. 학문, 교육, 문화, 예술 등에서 제주문화 창달에 기여한 이들은 제주지역의 큰 자산이다. 나비박사로 알려진 석주명(1908~1950)은 근대 한국을 대표하는 과학자 중의 한 사람으로 ‘세계적 나비학자’, ‘융복합학자’, ‘세방주의자’, ‘한국의 르네상스인’, ‘제주학의 선구자’ 등으로 불리고 있다. 그는 지역주의, 민족주의, 세계주의 어느 한 쪽에 매몰되거나 배척하지 않고 모두를 잘 받아들여 조화를 이뤘고, 다양한 분야에 두루 능통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이념이나 관점을 녹여내어 화합하려고 했다. 그런 점에서 그는 근대인물이지만, 현대에 더 어울리는 시대를 앞서간 인물이라 평가할 수 있다. 2020년 6월 그가 근무했던 구(舊)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 제주시험장이 국가등록문화재 제785호로 공식 지정되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 7월 제주지역의 발전과 도민 복리에 기여한 분의 숭고한 뜻을 연구하고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역발전 공헌자에 대한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를 계기로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제주문화 창달에 기여한 석주명을 제주의 근대인물유산으로 지정하고, 그의 뜻과 정신을 널리 알리고, 교육하고, 선양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석주명, 인물유산, 학문이념, 제주학의 선구자, 기념사업

* 이 논문은 2020학년도 제주대학교 교원성과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제주대학교 철학과 교수

I. 들어가는 말

인류는 한 세대에 이뤄놓은 성과를 다음 세대에도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면서 물질 문명과 정신문화를 이뤄왔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각 지역과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연합 산하기구인 유네스코(UNESCO)에서는 가치 있는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전승 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만들고 있다.

유네스코에서는 자연과 문화 분야에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인류유산 파괴를 막고, 국제적 협력을 통해 자연재해나 전쟁으로 파괴 위협에 처한 유산 복구와 보호를 위한 세계유산(World Heritage)제도, 국제적 협력과 지원을 통해 인류 문화다양성의 원천인 무형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인류무형문화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제도, 그리고 세계적 가치가 있는 귀중한 기록유산을 보존하고 신기술을 이용하여 대중들이 기록유산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제도 등을 두고 있다.¹⁾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국가나 지역 차원에서 보전해야 할 유산[문화재] 유형들을 유적건조물, 유물, 무형문화재, 자연유산, 등록문화재 등으로 나누어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시도)무형문화재, 국가(시도)민속문화재, 국가(시도)등록문화재, 시도유형문화재, 시도기념물, 문화재자료로 지정하여 보존 전승하고 있다.²⁾

하지만 그러한 유산[문화재] 유형분류 방식에 따르면, 인물과 관련된 유적·유물과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을 유산으로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한 시대나 사회의 귀감이 되는 인물 자체는 유산으로 지정할 수 없다. 따라서 학문, 교육, 문화, 예술 등에서 지역과 국가와 인류 문화 창달에 기여하거나 선구자적 역할을 한 선조들이 남긴 정신적 전통을 계승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물유산’이라는 별도의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 만일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당대의 사표(師表)가 될 만한 인물의 뜻과 정신을 널리 알리고, 기리고, 교육하고, 선양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이나 기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학문, 교육, 문화, 예술 등에서 제주문화 창달에 기여한 이들은 제주지역의 큰 자산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 7월 15일 “지역발전 공헌자에 대한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제주지역의 차원에서 그러한 인물을 기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 및 도민 복리에 기여하고 돌아가신 지역발전 공헌자(내·외국인 포함)의 업적을 기념하고, 이들의 숭고한 뜻을 연구 및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기

1) ‘유네스코등재유산’, 문화재청 국가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heri/html/HtmlPage.do?pg=/unesco/unescoInfo.jsp&pageNo=5_1_1_1 에서 2020.12.1 인출.

2) ‘문화유산검색’,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DivView1.do?tabGubun=1&pageNo=1_1_4_0 에서 2020.12.1 인출.

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후손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함양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조례를 근거로 제주문화 창달에 기여한 이들의 뜻과 정신을 연구하고 계승하는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게 되었다.

석주명(石宙明, 1908.10.17~1950.10.6)은 세계적 나비학자이면서 제주학의 선구자로 불리고 있다. 논자는 「석주명의 제주학 연구의 의미」(2011), 「학문융복합의 선구자 석주명」(2011), 「석주명의 학문이념에 관한 연구」(2017), 『한국의 르네상스인 석주명』(2018), 「석주명이 본 제주문화 속의 몽골적 요소에 대한 재검토」(2020) 등에서 석주명의 학문적 업적을 재평가한 적이 있다. 한편, 일제강점 말기에 석주명이 근무했던 구(舊)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 제주도시험장이 2020년 6월 24일 국가등록문화재 제785호로 등재된 것을 계기로 제주사회에서 그의 뜻과 정신을 어떻게 기릴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2020).

이 글에서는 석주명을 제주의 근대인물유산으로 선정하여 그의 학문적 업적과 정신을 기려야 하는 이유와 그 방안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제주출신은 아니지만 제주의 교육, 문화, 예술 등에 기여함으로써 제주의 인물유산이라 할 수 있는 조선시대의 제주 오현(五賢)³⁾과 추사(秋史), 그리고 근대의 석주명에 대해서 살펴본다. 그리고 3장에서는 석주명이 제주와 어떤 인연이 있고 어떤 기여를 했는지, 4장에서는 오늘날에도 계승 발전시켜야 할 석주명의 이념과 정신이 무엇인지, 5장에서는 석주명이 남긴 유물과 그 활용방안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논해보기로 한다.

II. 제주도의 인물유산

1. 조선시대 인물유산으로서 오현(五賢)과 추사(秋史)

제주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학문, 교육, 문화, 예술 등 분야에서 명성이 높고 제주 역사에서 중요한 사람들을 제주의 인물유산으로 선정하여 그들의 뜻과 정신을 선양하고 계승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명성이 높고 제주문화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은 제주

3) 우리나라 성리학의 도통(道統) 계보에서 오현(五賢)은 ‘김굉필(金宏弼), 정여창(鄭汝昌), 조광조(趙光祖), 이언적(李彦迪), 이황(李滉)’을 이르지만, 제주지방에서는 ‘김정(金淨), 송인수(宋麟壽), 정운(鄭蘊), 김상헌(金尙憲), 송시열(宋時烈)’을 제주 오현(五賢)이라 한다(고창석 외, 2000: 112~113).

도의 중요한 자산이다.

김태능(2014: 56-60)은 『제주도사논고』에서 명성이 높은 제주의 인물로 세종 때 한성 판윤(漢城判尹) 고득중(高得宗, 1388~1452)과 그의 아들 고태필(高台弼, ?~?), 선조와 인조 때 헌마공신(獻馬功臣) 김만일(金萬鎰, 1550~1632), 정조 때 기민구휼(饑民救恤)한 김만덕(金萬德, 1739~1812), 일제강점기 언론인 김명식(金明植, 1891~1943) 등을 들고 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2008)에서 펴낸 『제주문화상징』에서는 제주를 상징하는 인물들로 입도조(入島祖), 고득중, 김만덕을 꼽고 있다. 그리 본다면 조선시대의 고득중과 김만덕은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알려진 인물이고, 제주의 역사와 문화에도 영향을 미친 제주의 인물유산이라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제주섬에는 중앙정부에서 관리로 파견되어 부임하거나, 중앙정치에 희생되어 유배를 오거나, 정쟁이나 전쟁을 피해 온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 가운데는 학문, 교육, 정치, 문화, 종교, 예술 등 분야에서 명성이 높고, 제주문화 창달과 제주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이들이 있다. 그들의 뜻과 정신을 계승 발전하는 것이 제주문화를 북돋우고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들을 제주의 인물유산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주특별자치도(2008)는 제주문화에 영향을 미친 제주 오현(五賢)을 기리던 ‘오현단(五賢壇)’과 조선 최고 예술가로 불리는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1786~1856)가 제주 유배 중에 완성한 ‘추사체(秋史體)’와 ‘세한도(歲寒圖)’를 제주문화상징물 99개 속에 포함시키고 있다. 제주 오현과 추사는 제주출신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당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전국적으로 잘 알려져 있고, 제주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제주의 인물유산이라 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 제주를 거쳐 간 주요 인물들로 목사(牧使) 286명, 어사(御使) 22명, 그리고 주요 유배인(流配人) 125명 등이 있는데(고창석 외, 2000: 7-37),⁴⁾ 이들 가운데는 선정(善政)을 베풀고, 충절(忠節)과 의리(義理)의 표상이 된 이들도 있고, 제주교육에 이바지한 이들도 적지 않다. 제주에서는 그들 가운데 도학, 의리, 교육 차원에서 교훈적 역할을 한 충암(沖庵) 김정(金淨, 1486~1521), 규암(圭菴) 송인수(宋麟壽, 1487~1547), 동계(桐溪) 정운(鄭蘊, 1569~1641),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 1570~1652),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을 특별히 제주 오현(五賢)으로 만들어 굴림서원에 봉안하였고, 굴림서원은 1868년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될 때까지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였다.⁵⁾ 이들이 제주에 머문 기간은 정운 9년 5개월, 김정 15개월, 김상헌 4

4) 여기서 어사(御使)의 수는 별감(別監)을 제외한 것임.

개월, 송시열 111일, 송인수 3개월 등으로 편차가 크지만(고창석 외, 2000: 84-89), 모두 제주 오현으로 추앙되고 있다. 그리고 제주 오현은 제주 명문사학 중 하나인 오현중고등학교의 교명에도 반영되어 오늘날까지도 간접적으로 제주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추사 김정희는 8년 3개월간 유배생활을 하면서 추사체와 세한도로 대표되는 글씨와 그림을 완성하고, 수많은 시와 산문을 남겼다. 제주유배의 혹독한 시련이 그의 학문과 예술을 절정에 이르게 하였다. 만일 추사에게 제주유배 시기가 없었다면 그의 학문과 예술은 전혀 달라졌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제주유배 동안에 강기석, 강도순, 강사공, 김구오, 김여추, 김좌겸, 박계첨, 이시형, 이한우, 홍석우 등 많은 제자들을 양성함으로써 제주의 학문과 교육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이처럼 제주는 추사의 예술과 학문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추사는 제주의 학문과 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의 ‘세한도’는 국보 180호로 지정되고, 그의 유배지는 사적 제487호로 지정되어 국가유산으로 보호받고 있다. 그리 본다면 추사를 제주의 인물유산으로 선정하는 것은 전혀 어색한 일이 아니다.

2. 근대 인물유산으로서 나비학자 석주명

제주 오현과 추사의 사례에서 보듯이 학문, 교육, 문화, 예술 분야에서 제주문화 창달에 기여한 이들을 선정할 때 제주출신으로만 국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을 감안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발전 공헌자에 대한 기념사업 지원 조례”에서도 “지역발전 공헌자”의 범위를 제주출신자뿐만 아니라 내외국인까지 확대하고 있다.⁶⁾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기에도 수많은 육지 사람들이 제주를 거쳐 갔고, 그 과정에서 제주의 학문과 예술, 교육과 문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이들도 있다. 그 가운데 나비학자 석주명은 일제강점기 말기에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 제주시험장(이하 제주도시험장) 책임자로 있으면서 제주도의 자연, 인문, 사회와 관련된 자료를 많이 수집하고 연구하여 제주학의 토대를 놓았다. 그리고 한국전쟁기에는 이중섭, 계용묵, 변훈 등 문화예술인들이 피난생활을 하면서 제주와 인연을 맺고, 제주의 문화예술인들에게 직간접 영향을

5) 『제주유백 6백년사』 글림서원 학생명단에 따르면, 영조26년(1750) 당시 129명, 철종11년(1860) 당시 397명, 고종29년(1892) 58명에 이른다(고창석 외, 2000: 223-225).

6) 조례에 따르면, “지역발전 공헌자”란 내외국인 중 다음 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도민들을 위해 사회공헌을 하고 사망한 사람으로서 「상훈법」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은 사람, ㉡제주자치도의 자연·인문·사회분야에 대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 사망한 사람으로서 「상훈법」에 따른 서훈을 수여받은 사람, ㉢제주출신으로서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린 후 사망한 사람으로서 「상훈법」에 따른 서훈을 수여받은 사람, ㉣제주출신으로서 제주자치도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사망한 사람으로서 제주자치도 문화상을 수여받은 사람. 제주특별자치도(2020).

미치기도 하였다.

여기서는 석주명에 한정하여 논하기로 한다. 그는 세계적인 나비학자이고, 세계평화언어인 에스페란토 운동가이며, ‘조선적 생물학’을 주창하면서 자연과학 분야에서 국학운동을 펼치기도 하였다. 그는 우리나라 자연과학 분야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정부 건국공로훈장을 서훈받았다(1964년).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원 한림원에서 그를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에 헌정하였으며(2009년), 한국조폐공사에서 그의 기념메달을 제작하였고(2010년), 우정사업본부에서 그의 기념우표를 발행하였으며(2015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우장춘, 이희소 등과 함께 그를 ‘과학기술유공자’로 선정하였다(2017년). 그리고 그의 드라마틱한 삶은 라디오드라마와 뮤지컬로도 공연되었고,⁷⁾ 초등학교과서에도 실린 바 있으며,⁸⁾ 그의 나비채집도구는 국가등록문화재 제610호로 등재되었고,⁹⁾ 그가 근무했던 제주도시험장 건물은 국가등록문화재 제785호로 등재되었다.¹⁰⁾ 그리 본다면 석주명은 제주와 인연을 맺고 있는 근대인물 중에서도 보기 드물게 전국적으로 뿐만 아니라 세계적 명성을 지닌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석주명은 1908년 10월 17일 평양에서 태어나 1921년 평양종로보통학교, 1926년 개성 송도고등보통학교(이하 송도고보), 1929년 일본 가고시마고등농림학교(이하 가고시마고농) 농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모교인 송도보고에서 1931년 4월부터 1942년 3월까지 11년간 교사로 있으면서 세계적인 나비학자 반열에 올랐다. 그는 제주도에 1936년 여름 한 달간 나비채집을 하면서 제주의 자연과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1943년 4월부터 1945년 5월까지 2년 남짓 제주도시험장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제주도의 방언, 인구, 문헌, 민속, 역사, 곤충 등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였다. 해방이 되자 그는 그동안 나비와 제주 관련 자료들을 정리하여 발간하는데 전력을 기울였고, 한국전쟁 중인 1950년 10월 6일 횡사하였다. 그는 제주의 자연과 문화의 가치를 발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에 몰입하여 6권의 제주학총서를 결집해냄으로서 제주학의 선구자로 불리며, 누구보다 제주를 잘 알고 사랑한 나머지 스스로를 반(半)제주인이라 자부한 바 있다. 석주명의 전국적 명성과 제주문화에 기여한 바를 감안하면, 그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발전 공헌자에 대한

7) KBS라디오 ‘빛을 남긴 사람들, 석주명 편’ 1960년 방송(연출: 홍종화, 작가: 최헌); 제주 MBC, WCC총회기념 특집 라디오드라마 2부작 석주명 일대기 “나비의 꿈” 2011년 방송(PD: 지건보, 작가: 한진오); 석주명 일대기를 그린 창작뮤지컬 <부활-더 골든 데이즈> 2011년 공연(12.7~12.25, 나루아트센터) 2012년 공연(10.27~11.11, 한전아트센터).

8) ‘한국의 나비박사 석주명’, 초등학교 교과서 『탐구생활6-1』(1990년); ‘석주명’,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읽기3-2』(1996년).

9) 등록고시일 2014년 10월 29일.

10) 등록고시일 2020년 6월 24일.

기념사업 지원 조례”의 ‘지역발전 공헌자’로서 자격이 충분하다.

물론 그동안 석주명을 기념하는 학술행사나 사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가 서거한 지 50주년이 되는 2000년에 제주전통문화연구소에서 석주명 기념 학술세미나가 열린 이후로,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연구소와 제주학회 등에서도 몇 차례 석주명 기념세미나와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2003년 석주명이 근무했던 제주도시험장 부근에 기념비가 세워지고, 2007년 ‘석주명선생기념사업회’가 창립되었다. 하지만 기념세미나나 기념행사만으로 그의 정신을 선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석주명과 동시대를 살면서 그와 비견되던 생물학자로 씨 없는 수박으로 널리 알려진 우장춘(禹長春, 1898~1959)박사가 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1999년 그의 생전 연구 활동 유적지인 동래구 온천동에 우장춘기념관을 개관하였고, 인근 도로를 우장춘로로 명명하여 그의 연구정신과 육종학에 대한 세계적 업적을 기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장춘기념관에서는 2006년부터 그의 서거일(8월 10일)을 전후하여 ‘부산시민 추모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추모기간 동안 원예시험장 견학 등 다양한 체험행사를 병행하고 있다.¹¹⁾ 우장춘 박사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는 기념관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들은 앞으로 있게 될 석주명기념사업의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오늘날 석주명을 모르는 이 없지만, 그에 대한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가 부족하여 그를 제대로 아는 이도 거의 없다(윤용택, 2018: 8). 그가 제주의 가치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렸던 것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제주도가 나서서 그의 뜻과 정신을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제주지역의 문화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III. 석주명의 제주 인연

1. 제주도와 맺은 깊은 인연

석주명은 1936년 여름 1개월간 나비채집, 1943년 4월부터 2년간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 제주도시험장(이하 제주도시험장) 근무, 1948년 조선산악회 한라산등반대 적설기 조난 수습차 1주일간 체류 등을 하면서 제주도와 깊은 인연을 맺었다.

11) 부산과학기술협의회 교육프로그램 fun&FUN과학관 우장춘기념관, <http://www.fobst.org/kor/Edu/Edu020304.php> 에서 2021.1.20 인출.

그는 미국 자연사박물관의 왓슨(F. E. Watson)의 지원을 받아서 1936년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한 달 남짓 제주도에서 나비를 채집하였다. 그는 제주도를 일주하고, 제주읍, 삼성혈, 사라봉, 별도봉, 열안지오름, 삼의악오름, 관음사, 칩오름, 한라산, 백록담, 영실, 서귀포, 미악산, 설섬, 성산포, 덕수리, 모슬포, 가파도, 산방산, 한림 등을 답사하면서 총 7과 58종 나비를 채집하였다(石宙明, 1937a: 150-174). 당시에 그는 제주도 특유의 자연과 문화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곤충채집을 하다가 포충망을 내려놓고 제주사람들이 조를 파종한 후 우마(牛馬)와 함께 밭을 밟으면서 부르는 제주노동요를 들으며 한참 동안 앉아 있곤 했는데(石宙明, 1937b: 27-29), 그러한 체험은 훗날 그를 제주도 연구에 몰입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석주명은 1942년 3월말 송도중학 교사직을 사임한 후 7월 개성에 있는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미생물학교실 부설 '생약연구소'에 촉탁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생약연구소 제주도 시험장이 개장되자 제주도에서 사계절을 지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자청하여 근무를 자원하였다. 그는 1943년 4월 24일 서귀포 토평에 있는 제주도시험장이 개장되면서 책임자로 부임하여 1945년 5월 개성으로 복귀할 때까지 2년 남짓 근무하였다.

제주도시험장의 설립 목적은 약용식물과 아열대식물을 시험재배 하는 것이었다. 석주명에 따르면, 시험장 개장 초기에는 디기탈리스 시험재배에 주력하였고, 목향(木香)과 피마자 등을 시험재배하였다(석주명, 1971). 그리고 1944년 봄에는 제주도시험장을 둘러싼 1,320미터 돌담 안쪽에 1미터 간격으로 동백나무 1,230그루를 삼목하고, 아열대식물인 탕자, 감귤, 비과, 무화과, 차, 올리브나무 등을 심었다(석주명, 1968: 145). 하지만 그는 제주도시험장 책임자로서 임무 이외에도 이전부터 관심을 가졌던 제주의 방언, 민속, 역사, 인구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많은 힘을 쏟았다. 그 점에서 본다면 그가 근무했던 제주도시험장은 제주도 과학농법의 발상지일 뿐만 아니라 제주도 연구를 했던 제주학의 산실로서 의미가 크다.

그리고 석주명은 1948년 1월 30일부터 2월 6일까지 제주를 방문하여 제주도를 일주한 바 있다. 당시에 조선산악회 부회장이었던 그는 회장대리 자격으로 한라산동기등반대의 적설기 조난사고를 수습하기 위해서 제주도를 찾았다(제주신보, 1948년 2월 4일자). 그 시기는 그의 『제주방언집』이 막 출간되고, 『제주도의 생명조사서』와 『제주도문헌집』 등의 제주도총서를 출간을 준비하던 때였다. 그는 제주도에 머무는 동안 제주신보에 '조선의 자태'를 기고했는데, 그는 그 글에서 자신이 제주도를 연구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제주도에는 언어, 풍속, 관습, 기타에 있어서 고래(古來)로 육지와는 상이(相異)하다고 하여 왔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조선의 옛날 모습 내지 진정한 모습을 말해주는 자료가 많다. 진정한 조선의 자태를 찾으려면 제주도에서 그 자료를 많이 구할 수가 있겠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주도는 고도(孤島)이므로 육지서와 같이 외래문화에 침윤(浸潤)받을 기회가 적었고, 그리 작지 않은 면적과 인구는 고유문화를 보존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흔히 쓰는 공기와 물을 귀하게 생각 못하는 것처럼, 제주도 사람은 제주도의 특이성 내지 조선의 고유문화성을 귀한 줄을 모른다. 육지인의 한 사람으로 내가 제주도에 2개년이나 생활한 경험으로는, 제주도에 조선의 자태를 밝혀줄 금쪽같은 자료가 지극히 많이 산재(散在)함을 알 수가 있다. 이도(離島) 후 4년 만에 다시 와보니 해방과 38선 관계로 육지인들의 입도와 소위 육지 문화의 침윤으로 제주도의 특이성이 없어져감을 느낀다. 그것도 필연적 현상이기는 하나, 하루바삐 조선의 식자(識者)들은 금쪽같은 제주도의 자료를 수집하여 계통 세우려고 노력해야겠고, 제주도민 일반도 많이 성원해 주셔야겠다(제주신보, 1948년 2월 6일자).

석주명이 제주도의 자연과 문화에 특별히 더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한반도와 다른 제주의 자연은 우리민족의 자산을 풍부하게 해주고 터전을 확장해주며, 우리문화의 옛 모습을 간직한 제주문화를 잘 보전하고 연구한다면 궁극적으로 우리문화를 풍성하게 해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2. 반(半)제주인이었던 제주학의 선구자

석주명이 체류하던 당시는 제주4.3 이전이어서 제주도의 자연과 문화에서 제주적인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다. 그는 2년 남짓 제주에서 생활하면서 보고 듣고 읽은 것 중에 제주에 관한 것이 나오면 즉시 적당한 제목을 붙여 카드에 기록해 쌓아두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전문분야인 나비에 국한하지 않고 제주의 자연과 인문사회 분야에 이르기까지 관심을 넓혀 제주도의 전반적인 진상을 규명할 수 있었다. 곤충에서 시작된 석주명의 제주도 연구는 제주어, 역사, 문화, 사회문제 등으로 광범위하게 확장되어 갔다.

석주명은 제주어 동식물명, 농임업, 축산, 해산(海産) 관련어, 제주속담 등에서 제주어 7,000어휘를 수집하고, 제주어를 조선고어, 다른 방언, 외국어 등과 비교 연구하면서 그 유래를 밝히고자 하였고, 표본 추출된 16개 마을 4,689호 인구조사를 하고 다양한 분석을 통해 여다(女多)의 섬으로 알려진 제주도의 특이한 인구구조를 밝혔으며, 제주도 관련 자연분야, 인문사회 분야 논저 1,000여종을 정리하였다. 그 밖에도 그는 제주도 전설을 채록하고 역사자료를 수집하고, 자신의 전문 분야인 제주도 나비와 곤충의 전모를 밝혔다.

그러한 성과의 대부분은 제주도총서에 결집되어 있는데, 제주도총서 발간 계획은 1950년 6월 서울에서 탈고한 『제주도자료집』 서문에 잘 나타나 있다.

저자가 1943년 4월부터 1945년 5월까지 만 2개년여 제주도에 살면서 수집한 제주도에 관한 자료는, 8.15해방 직후 총서로 하여 6권의 책으로 출간할 계획을 세웠다. 서울신문사 출판국의 호의로, 2개월에 1권씩 모두 1년 동안에 마치려 한 것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렇게 지연되었는데, 지연된 그만큼 내용을 좀 더 충실히 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 제주도총서의 발간상황은 다음과 같다. 제1집 ‘제주도방언집’(1947), 제2집 ‘제주도의 생명조사서-제주도인구론’(1949), 제3집 ‘제주도문헌집’(1949), 제4집 ‘제주도수필-제주도의 자연과 인문’(校了), 제5집 ‘제주도곤충상’(採字了), 제6집 ‘제주도자료집’(脫稿)으로, 이 제6집에는 제1-5집에 들지 않은 여러 자료를 모은 것이다(석주명, 1971: 3).

하지만 제주도총서는 그가 한국전쟁으로 줄지에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완간되지 못하다가 여동생 석주선의 노력으로 『제주도수필』(1968), 『제주도곤충상』(1970), 『제주도자료집』(1971)이 유고집으로 발간됨으로서 완간되었다. 그의 제주도총서는 한국인에 의해 이뤄진 최초의 종합 제주도 보고서 내지는 연구서로, 제주4.3 이전 자료들이 많이 간직되어 있어서 제주도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내지는 제주학 연구를 위한 원재료로서 가치를 지닌다.

석주명은 나비연구에서 사용했던 통계, 분류, 분석 방법들을 방언연구, 인구조사, 문헌자료 분류 등에서도 응용함으로써 자연과학의 방법론을 인문사회 분야에도 적용하는 선례를 남겼고, 제주도의 자연, 인문, 사회 전반을 아울러서 연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통합학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제주도로서는 이방인이었고, 곤충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는 비전공자였기 때문에 제주인들이 미처 보지 못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참신성과 과감성을 가졌지만, 그만큼 잘못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의 연구 성과를 계승하고 오류를 바로잡는 것은 각 분야의 전공자들이 몫이다.

그는 제주도를 떠난 다음에도 해방 직후부터 한국전쟁 직전까지 4년 동안 서울에서 발행하는 자유신문, 서울신문, 중앙신문, 대동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현대일보, 독립신보, 매일신보, 조선인민보, 조선의약신보(주간) 등 10여 종의 신문에 등장하는 제주관련 기사들을 수집하고 정리하여 발표하였다(석주명, 1949c; 1992a: 179-190). 그것들은 당시 미국이 제주도를 보는 시각, 제주도(濟州島)가 전라남도에서 분리되어 도(道)로 승격되는 과정, 콜레라 창궐, 1947년 3.1절시위사건과 제주4.3을 보는 미군정의 견해 등을 볼 수 있는 자료들이다.

석주명은 정부수립 이후 제주신보에 기고한 ‘제주도청론(濟州島廳論)’에서 자신은 제주를 누구보다 잘 아는 반(半)제주인임을 밝히면서 제주도는 다른 도에 비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중앙청 직속의 특별도청이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했다(석주명, 1948d; 1971: 197-198). 그는 정부수립 당시부터 제주도가 다른 지역과 달리 특별지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IV. 석주명의 학문 이념과 정신

1. 학문적 열정과 성실성

석주명은 1931년 4월부터 모교인 개성 송도고보로 전근하여 1942년 3월말까지 11년간 교사로 근무하면 나비수집과 연구에 몰두하였다. 그는 개성 주변의 나비를 채집하여 일본 곤충도감을 바탕으로 학명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괴리가 많다는 걸 알고, 개체변이 연구를 시작하였다. 개체변이 연구를 위해서는 각 종마다 수백 수천 개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송도고보 교사시절 60만 개체의 나비를 수집하였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당시 학생들에게 여름방학 과제로 부과하여 얻은 여름형 나비였기 때문에, 봄형 나비가 필요할 때는 우종인, 장재순, 왕호 등의 조수를 파견하였고, 석주명 자신은 그들이 채집하기 힘든 벽지(僻地)를 중심으로 채집여행을 하였다.

석주명은 구장(球場), 개성(開城), 나남(羅南), 영흥(永興), 금강산, 지리산, 다물도, 완도, 울릉도, 제주도 등지의 나비목록을 밝혔고, 나비채집하게 된 배경, 채집일지, 채집지도, 채집성과 등을 담은 13편의 나비채집기를 남겼다.¹²⁾ 그는 매년 여름방학에 나비채집

-
- 12) 1. 백두산지방산 접류채집기: *Zephyrus*, vol.5[4] (1934) - 6과 130종
 2. 조선동북단지역산 접류채집기: *Zephyrus*, vol.6[3/4] (1936) - 6과 121종
 3. 제주도산 접류채집기: *Zephyrus*, vol.7[2/3] (1937) - 7과 58종
 4. 남조선동물채집기: 『송우』, no.10 (1937) - 6과 56종
 5. 사할린[樺太], 홋카이도[北海島] 접류채집기: 『곤충계』, vol.6 (1938)
 6. 개마고대산 접류채집기 I - II: 『곤충계』, vol.7 (1939) - 114종
 7. 함북고지대산 접류채집기: 『조선박물학회잡지』, no.27 (1939) - 109종
 8. 조선동북지방산 접류채집기: *Zephyrus*, vol.8[3/4] (1940) - 6과 109종
 9. 관모연봉산 접류채집기: *Zephyrus*, vol.9[2] (1941) - 6과 58종
 10. 평북압록강연안지대 접류채집기: 『조선박물학회잡지』, vol.9 (1942) - 6과 83종
 11. 북조선 접류채집기: 『조선박물학회잡지』, vol.10 (1943) - 6과 128종
 12. 남조선 접류채집기: 『조선박물학회잡지』, vol.10 (1943) - 6과 76종
 13. 소백산맥 접류채집기: 서울신문(1947년 8월 16일자 4면)

을 나섰는데, 백두산(1933년), 함경북도와 간도 용정지방(1934년), 금강산을 비롯한 강원도, 충청남도와 전라남북도 일대(1935년), 전라남도 남해안과 제주도(1936년), 경상남도 일대, 사할린과 홋카이도 일대(1937년), 묘향산을 비롯한 우리나라 서부(1938년), 함경북도와 만주와 내몽골 일대(1940년), 압록강 유역과 평안북도 일대(1941년) 등에서 채집하였다. 그리고 그는 1942년 송도중학 교사직을 사임한 후에는 함경도를 중심으로 한 북부지방과 경상도를 중심으로 한 중남부 지방에서 나비를 채집하였다. 석주명의 나비 채집기와 채집목록들은 나비채집에 대한 그의 열정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한편, 그는 1938년 영국 왕립아시아학회 조선지부(Korea Branch of Royal Asiatic Society)로부터 영문(英文)으로 조선나비 총목록을 집필해줄 것을 의뢰받고, 넉 달 동안 송도고보 교사의 직무를 잠시 내려놓고, 일본 도쿄제국대학 도서관에서 우리나라 나비와 관련된 300여 편의 학술논문을 검토하였다. 마침내 그는 1939년 3월 탈고한 후 1940년 6월 영문으로 된 *A Synonymic List of Butterflies of Korea*¹³⁾를 출간하였다. 여기에는 우리나라 나비 255종과 잘못 보고된 5종에 대한 세부정보들이 실려 있는데, 이 책은 일제강점기에 우리 과학자가 영문으로 집필한 유일한 책으로 그를 세계적 나비학자 반열에 올라서게 하였다.

석주명은 다른 이름(異名)으로 불리던 나비들이 사실은 같은 종(同種)이었음을 밝히는데 주력하였다. 그는 개체변이를 객관적으로 보일 수 있는 정량적 형질을 추출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처리하여(문만용, 1997: 19), 921개 동종이명(同種異名) 가운데 844개를 말살 처리하였다. 그는 『한국산접류의 연구』에서 총 8과 211종 201,267개체 표본을 관찰했음을 밝혔고(석주명, 1972), 배추흰나비 변이연구를 세 차례 하면서 총 167,847개체의 배추흰나비를 다루었음을 밝히고 있다.(석주명, 1971: 217). 그는 20년 동안 우리나라 나비 75만 개체를 수집하고, 37만 개체를 관찰하여, 우리나라 나비를 255종으로 분류하고, 248종의 나비이름을 지었으며, 252종의 나비분포를 우리지도와 세계지도에 그려냈고, 우리 나비연구사와 연구결과를 정리하면서 우리나라가 최종적으로 8과 234종을 밝혔다.¹⁴⁾ 이처럼 한 학자가 한 국가의 나비목록을 정리하고, 나비이름을 짓고, 자국지도와 세계지도에 나비분포도를 그리고, 나비연구사를 정리한 것은 세계 곤충학계에서 찾기 힘든 사례이다.

한편, 그는 제주방언의 뿌리와 제주인구 구조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13) 이 책은 일반적으로 ‘조선산 접류 총목록’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히 번역하자면 ‘한국 나비 동종이명 목록’이다.

14) 2019년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생물종목록에 따르면, 우리나라 나비는 현재 5과 284종이다. <http://www.kbr.go.kr/stat/ktsnfiledown/downpopup.do> 에서 2020.12.1 인출.

분석하여 『제주방언집』과 『제주도의 생명조사서』에서 최선의 결론을 얻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그는 제주도를 연구할 후학들을 위해 1,000종이 넘는 제주관련 문헌들을 분류하여 『제주도문헌집』에 정리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한국전쟁이 한창 진행 중인 시기에도 자신의 나비연구의 완결판인 『한국산접류의 연구』와 『한국산접류분포도』, 미발간된 제주도총서의 『제주도수필』, 『제주도곤충상』, 『제주도자료집』의 원고를 다듬고 교정보느라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 그러기에 그는 42년이라는 짧은 인생에도 불구하고 타의 추종을 불허할 학문적 업적을 남길 수 있었다.

2. 학문의 체계성과 통일성

석주명은 어느 하나를 제대로 알려면 그와 관련된 것들도 알아야 하고, 나비학의 계통을 제대로 세우려면 나비만 하나만 알아서는 안 되고, 나비와 관련된 다른 것들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학문이 아무리 분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일 과목의 권위자는 타 과목에도 통하는 데가 있다. 내가 전공하는 조선나비를 예로 들어서 말하겠다. 나비의 학문인 인시류학(Lepidopterology)의 권위자가 되려면, 직접 관계되는 곤충학(Entomology)에도 통하여야겠고, 동물학(Zoology) 전체에도 다소는 통하여야 될 뿐만 아니라, 더 크게 생물학(Biology)에도 얼마큼은 통하여야만 된다. ... 뿐만 아니다. 나비의 학문이라도 깊이 들어가려면 지질학(地質學), 물학(物學)을 포함하는 박물학(Natural History)도 바라보아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박물학에 상대되는 물리, 화학도 최소한도로 알아야 자기의 나비의 학문을 자연과학(Natural Sciences)의 계통에 갖다 맞출 수가 있다. 동시에 자연역사 즉 박물학(Natural History)에 상대되는 인문역사 즉 협의의 역사(Human History)에도 손이 뻗어야 인생과의 관계까지 가져가서, 철학적 경지에 들어가 비로소 나비의 학문도 계통이 서게 되는 것이다. ... 이와 같이 학문이 세분된 오늘날 한 과목을 전공하는 학도가 학문 전체에도 관심을 갖는 것처럼,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들도 그 근원이 같은 학자나 정치가 등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느니보다 관심을 아니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할 수 있다(석주명, 1949a: 105-106).

실제로 석주명은 *A Synonymic List of Butterflies of Korea*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우리 고전을 섭렵하였다. 그는 정철(鄭澈, 1536~1593)의 「사미인곡(思美人曲)」에 ‘범나비’가 처음 등장하고, 「조선왕조실록 광해군일기」에 ‘배추흰나비[白蝶]’가 등장하며, 신작(申綽, 1760~1828)이 「조수충어초목명(鳥獸蟲魚草木名)」에서 나비[蝶]와 나방[蛾]

을 처음으로 구분하였다는 것을 밝혔다(석주명, 1972: 80-85). 하지만 그는 일호(一濠) 남계우(南啓宇, 1811~88)의 나비그림이 나비 종류와 발생계절, 나비가 좋아하는 식물 등을 연구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당시와 오늘날 자연과 생태의 변화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고전 가운데 유일하게 과학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다(석주명, 1941: 43-47; 1992a: 43-54). 한편, 그는 제주방언을 연구하는 과정에서도 『훈민정음(訓民正音)』,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 『두시언해(杜詩諺解)』, 『훈몽자회(訓蒙字會)』, 『소학언해(小學諺解)』,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 『송강가사(松江歌辭)』 등과 당시 방중현, 최현배 등 우리말 연구학자들의 논저를 참고했다(석주명, 1947a: 132-136). 그 과정에서 얻어진 우리말에 대한 지식은 ‘가락지장사’, ‘각씨멧노랑나비’, ‘모시나비’, ‘배추흰나비’, ‘상제나비’, ‘유리창나비’, ‘청띠제비나비’, ‘큰수리팔랑나비’, ‘홍점알락나비’, ‘흰줄표범나비’ 등 248개의 아름다운 우리말 나비이름을 짓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석주명은 우리나라 나비와 자연의 실상을 밝히는데 주력하였다. 그는 나비연구를 하면서 우리나라 최남단 마라도에서 최북단 온성까지, 동쪽 울릉도에서 서쪽 가거도까지, 그리고 여러 섬들과 해안지대에서 백두산, 관모산, 한라산 등 고산지역까지 탐사하면서 우리나라 나비 분포의 전모를 밝혔고, 그 지역의 대표나비를 선정하였다(석주명, 1992a: 92-26). 특히 그가 제주도의 자연연구에 매진했던 이유는 제주자연이 일본보다 우리나라에 더 가깝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터전을 확고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

석주명은 우리말과 문화의 뿌리를 찾기 위해 제주도 방언과 문화를 연구하였다. 그는 우리문화의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제주문화는 우리문화의 뿌리이면서 궁극적으로 우리 문화를 풍요롭게 해줄 자산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그는 제주문화 뿌리를 찾기 위해 몽골 문화와 비교하기도 하였고(윤용택, 2020: 1-27), 제주어 유래를 찾기 위해 우리나라 다른 지역 방언, 외국어인 몽골어, 만주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말레이어, 필리핀어 등의 어휘를 탐색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위해서는 언어학, 국어학, 제주어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석주명은 연구대상의 근원을 찾고 다른 것들과 연계성을 밝힘으로서 학문의 체계성과 통일성을 세우려 했다. 그러한 그의 학문적 태도는 서로 다른 분야와 융복합해야 하는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3. 학문의 주체성과 평등주의

석주명은 생물들은 기후와 환경에 따라 향토색을 형성하기 때문에 생물학적 지역주의

를 주창한다. 한 생물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생물학과 더불어 지역에 바탕을 둔 지역적 생물학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우리를 위한, 우리에게 의한, 우리의 생물학의 가능성을 주장하며, 자연과학분야에서 국학운동을 시도하였다.

국학(國學)이란 국가를 주체로 하는 학문이니 국가를 지닌 민족은 반드시 국학을 요구하는 것이다. 종래로 국학이라 하면 한문책이나 보고 읽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마는 국학이란 인문과학에 국한될 것이 아니고 자연과학에도 연관되는 것으로 더욱 이 생물학 방면에서는 깊은 연관성을 발견할 수 있다. 조선에 많은 까치나 맹꽂이는 미국에도 소련에도 없고 조선사람이 상식(常食)하는 쌀은 미국이나 소련에서는 그리 많이 먹지 않는다. 그러니 자연과학에서는 조선적 생물학(朝鮮的 生物學) 내지 조선생물학(朝鮮生物學)이란 학문도 성립할 수 있다(석주명, 1992a: 63).

그는 남계우의 나비그림이 빼어남에도 불구하고 널리 알려지지 못한 이유를 우리나라 연구가 대부분 외국인 학자에 의한 연구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그는 ‘조선생물학’이라는 학문적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해 우리의 자연, 역사, 문화 속에서 우리 나비를 입체적으로 연구하려 하였다. 하지만 그의 조선적 생물학은 민족적 우수성을 배타적으로 강조하는 국수적 민족주의가 아니라, 한국의 생물상을 왜곡되거나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밝히면서 자연과 인생의 조화를 찾으려는 문화적 민족주의 틀 안에 놓여 있다(문만용, 2012: 135-136).

그리고 그의 『한국본위 세계박물학연표』(1992)는 지구상에 생물이 등장한 시점부터 그가 사망하기 직전까지 인류문명과 세계과학의 연대기를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정리한 것이다. 이는 그의 폭넓은 학문세계를 보여주는 문자 그대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펴낸 우리나라 사람을 위한 세계과학사요, 세계문화사로, 그가 자연과학에서 펼쳤던 국학운동의 산물이다.

석주명(1948a; 1992a: 204-205)은 민족 간에 언어적 평등 없이는 세계평화를 기대할 수 없고, 특정 강대국이 자국어로 타 국민들에게 소통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민주적이지도 않고 평화적이지도 않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국제어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① 중립어라야 할 것, ② 표현이 자유로워야 할 것 ③ 쉽게 배울 수 있어야 할 것 등을 내세운다. 강대국 언어는 지배-피지배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중립어라 할 수 없고, 세계적 학술어로 사용되는 라틴어는 중립적이긴 하지만 배우기가 어렵고 표현이 자유롭지 못하다. 반면에 에스페란토는 문법과 어휘가 간단하여 영어를 배우는 20분의 1 노력이면 충분히 습득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배울 수 있어서 국제어의 세 가지 요건에 모두 부합한다(석주명,

1949b; 홍성조 외, 2005: 66-84). 그가 모든 국가나 민족은 자국민이나 동족에게는 모국어로, 그리고 외국인에게는 에스페란토로 소통하자는 운동에 적극 참여했던 이유는 모든 인류는 평등하다는 입장을 지향했기 때문이었다.

한편, 그는 제주방언과 각 지역 방언들을 비교 연구하는 과정에서 ‘꼭감(곶감)’, ‘골미(골무)’, ‘넙비(남비)’처럼 서울 부근 말은 아니어도 우리나라 전역에서 널리 사용되는 말들은 표준어로 편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석주명, 1947a: 115). 이는 그가 중앙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지역 평등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제주지역의 방언인 제주어도 제주, 정의, 대정 지역의 세 지방어로 나눌 수 있고, 각각 그 지방어들도 마을마다 다르다는 걸 인정하였다. 그는 『제주도방언집』에서 제주어를 남부어와 북부어로 나뉘므로써(석주명, 1947a: 9), 소지역간에도 지역 평등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어, 표준어, 지역어에 대한 석주명의 일관된 입장은 언어적 측면에서 민주적이고 지역 평등주의적인 입장이라 할 수 있다.

4. 지역주의, 민족주의, 세계주의의 융섭

석주명의 지역주의와 민족주의는 편협한 국수주의가 아니라 세계주의와 이어지는 특징이 있다. 그러한 그의 세계관은 가고시마고농 시절에 접한 에스페란토의 영향이 크다. 에스페란토운동은 각 민족은 자국민과 소통할 때는 모국어로, 외국인과 소통할 때는 중립어이면서 배우기 쉬운 에스페란토로 소통함으로써 민족 간 대립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세계평화운동이다. 석주명은 일제강점기에 에스페란토를 통하여 외국 학자들과 교류하였고, 해방 후에는 일반대중을 위한 에스페란토 강습회를 열고 여러 대학에서 에스페란토 강좌를 개설하여, 『국제어 에스페란토 교과서 부(附) 소사전』을 보급하면서 에스페란토운동을 펼친 민족주의적 세계주의자였다.

석주명은 우리민족이 새나라 건설을 꿈꾸던 1947년에 『국제어 에스페란토 교과서 부(附) 소사전』과 『제주도방언집』을 펴냄으로써 지역과 세계,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해선 안 되고, 그 둘을 잘 융섭(融攝)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해방된 우리민족이 당당한 세계의 일원이 되려면 국제어인 에스페란토를 배워야 하지만, 우리문화를 담는 그릇인 우리말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고어(古語)의 보고인 제주어를 잘 보존하고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한국본위 세계박물학연표』 권두언에서 자신의 민족주의는 폐쇄된 국수적 민족주의가 아닌 열려 있는 보편적 세계주의와 결합된 민족주의 입장에서 서술했음을 밝히고 있다.

국가가 있는 민족은 어느 분야에 있어서나 자국을 중심으로 한 연표를 요구한다. ... 이 연표의 내용들은 첫째로 창의를 있어야겠고, 그것이 세계적 또는 한국적이라야만 했다. ... 박물학사상이 철저히 보급만 된다면 인종차별이 없고, 계급이 없고, 남녀가 평등한 사회가 이 지구상에 건설될 것이 기대되는 것이니 여기에 취급된 사항들에는 이 점이 연관된 게 적지 않다. ... 편자는 이 연표에 한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과학사 내지 세계문화사에 호응이 맞도록 힘써 보았다. ... - 1949년 3월(석주명, 1992b: v-vi)

석주명은 이 책을 통해 남녀, 인종, 계급 간에 차별 없고 평등해야 한다는 당위적 명제를 박물학이라는 객관적 사실과 세계문화의 전개과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보여주려 하였다(윤용택, 2018: 155). 민족문화가 융성하기 위해서는 지역문화의 다양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인류문화가 융성하기 위해서는 민족문화의 다양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나비연구를 통해서 학문의 깊이를 추구하고, 제주도연구를 통해서 학문의 폭을 넓혔으며, 에스페란토운동을 통해서 민족주의와 세계주의의 융섭(融攝)을 추구하였다. 그는 자신의 전문분야인 나비연구에 충실하면서도 인문사회 분야까지도 아우르는 통합적 학문연구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그는 인문학과 자연과학, 지역과 세계, 전통과 현대, 특수와 보편 등을 자연스럽게 넘나들었고, 오래된 것이라 폄하하지 않고 새로운 것이라 해서 경시하지 않았으며, 지역, 민족, 세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받아들여 녹여내고 조화를 이뤄냈다(윤용택, 2017: 25).

오늘날 우리는 다른 학문, 기술, 예술을 융합하고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진 이들과 공존하며 살아가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 두루 능통한 석주명의 통재적(通才的) 학문연구와 서로 다른 견해와 관점들의 조화를 이루려는 그의 융섭적(融攝的) 학문태도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V. 석주명의 유물 현황 및 활용 방안

1. 석주명의 유물 현황

석주명의 유물은 유품, 유적, 논저, 사진, 기타 기고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의 유품 가운데 국가등록문화재 610호로 지정된 나비채집도구와 *A Synonymic List of Butterflies of Korea*(1940) 원고를 쓸 때 사용된 영문타자기와 육필원고와 육필메모 등은 단국대 석주

명기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그리고 그가 1943년 4월 24일부터 1945년 5월까지 2년 남짓 근무했던 경성제대 부속 생약연구소 제주시험장(이하 제주시시험장)이 국가등록문화재 785호로 지정되었고, 복원 활용 계획이 세워지고 있다. 제주시시험장에는 석주명이 재임 당시에 사용하던 것으로 보이는 돌탁자가 있고, 그가 1944년 봄에 삼목한 동백나무 1,230그루 가운데 일부가 남아있다.

석주명은 생전에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논저목록과 해설을 남긴 바 있는데, 특히 한국 전쟁 중인 1950년 7월초에 탈고한 『제주도자료집』 부록 「저자의 업적목록 및 해설」은 자신의 연구업적을 최종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그는 16권(유고집 8권 포함)의 저서, 120편의 학술논문, 180편의 기고문 등을 남겼다. 그리고 석주명 관련 사진뿐만 아니라 그의 저서나 논문에 실린 여행지도, 나비채집지도, 나비분포도 등도 그의 행적을 엿볼 수 있는 주요한 자료들이다.

석주명 학술논문이 실린 주요 학술지로는 『제피루스(*Zephyrus*)』, 『동물학잡지(動物學雜誌)』, 『조선박물학회잡지(朝鮮博物學會雜誌)』, 『곤충계(昆蟲界)』 등이 있다. 『제피루스』는 1929년 일본접류동호회가 후쿠오카에서 창간한 나비 전문학술지로 석주명 논문 16편(후속논문 포함 22편)이 실려 있고, 『동물학잡지』는 일본동경박물학회에서 발행하는 동물학 학술지로 석주명 논문 15편(후속논문 포함 16편)이 실려 있으며, 『조선박물학회잡지』는 조선박물학회가 1925년 창간하여 1944년까지 발행한 생물학 학술지로 석주명 논문 14편(후속논문 포함 17편)이 실려 있고, 『곤충계』는 일본곤충취미회에서 발간한 곤충 전문학술지로 석주명 논문 6편이 실려 있다. 이들 학술지에 실린 논문들은 대부분 일제강점기에 일본어로 발간된 것들이어서 우리말 번역이 필요하다.

해방이 되자 석주명은 일반대중과 어린이들을 위해 과학의 대중화 운동을 펼치면서, 당대의 지식인으로서 신문과 잡지를 통해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나아가야할 지에 대한 적극적인 발언을 하게 된다. 당시 석주명이 기고했던 잡지로는 서울신문사의 『신천지(新天地)』, 현대과학사의 『현대과학』, 교육자료사연회의 『과학나라』, 조선아동문화협회의 『소학생』 등이 있고, 신문으로는 서울신문, 연합신문, 제주신보 등이 있다.

그리고 국학자 정인보(鄭寅普, 1893~1950)가 석주명이 소장하던 일호(一濠) 남계우(南啓宇)의 호접도(胡蝶圖)를 보고 지은 한시 ‘일호호접도행(一濠胡蝶圖行)’을 쓴 10폭 병풍도 의미있는 물품이다. 그 밖에 에스페란토 도입 100주년 석주명 기념엽서(2006), 석주명 인물메달(2010), 석주명 기념우표(2015) 등과 그를 기리는 각종 행사자료들도 그와 관련된 물품들이다.

2. 석주명 유물의 보전 방안

석주명의 뜻과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의 삶과 업적을 규명해야 한다. 그는 생전에 자신의 논저들이 언제, 어느 학술지, 잡지, 신문 등에 실렸는지 여러 차례 상세하게 기록하고 해설해 놓았다(석주명, 1971: 215-240). 그에 따르면, 그는 가고시마고농 시절인 1927년 발표한 「에스페란토학습에 대하여」를 시작으로 1950년 발표한 「나비잡이 여담」에 이르기까지 24년간 저술활동을 하였고, 학술적으로 의미있는 활동은 1932년 발표한 「조선구장지방산접류목록」 발표를 시작으로 1950년 발표한 「덕적군도학술조사보고」까지 19년간 이뤄졌다.

하지만 그의 유품과 논저들은 이차세계대전, 제주4.3, 한국전쟁 등을 거치는 동안 멸실되어 시중에서는 찾기가 어려운 상태다. 따라서 유물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것들이 어디에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생전의 논저 원본을 확보하여 연구자와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영인(影印)하고 디지털화 해야 한다.¹⁵⁾ 그리고 그의 생전의 주요 저서들은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 문만용(2018: 78)에 따르면, *A Synonymic List of Butterflies of Korea*(1940)는 석주명이 “세계적인 곤충학자로 인정되는 큰 업적”이기 때문에 등록문화재로 지정될 가치가 있고, 국립중앙과학관은 그 책을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 중요 과학기술자료”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다(한국대학신문, 2019년 8월 5일자)고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총서 가운데 『제주도방언집』(1947)은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말의 뿌리를 찾기 위해 처음으로 펴낸 방언집이라는 점에서, 『제주도의 생명조사서』(1949)는 제주 4.3으로 파괴되기 전 제주인구의 모습을 밝히는 중요한 자료라는 점에서 등록문화재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사후에 발간된 유고집들 가운데도 절판되어 대중들이 접하기 어려운 저서들은 복간할 필요가 있다.¹⁶⁾

15) 『조선 나비이름의 유래기』(1947)는 전자책으로 제작되어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 E-book 코너(<https://www.nibr.go.kr/cmn/wvtex/nibr/eBook/eBookList.do>)에서 공개되고 있다. 따라서 아래 책들도 영인(影印)하거나 전자책으로 제작될 필요가 있다.

- * *A Synonymic List of Butterflies of Korea*(1940), 영국왕립협회 조선지부
- * 국제어 에스페란토 교과서 (부) 소사전(1947), 한국에스페란토학회
- * 제주도방언집(1947), 서울신문사
- * 제주도의 생명조사서(1949), 서울신문사
- * 제주도문헌집(1949), 서울신문사

16) 2008년 서귀포문화원에서 석주명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그의 제주도총서 6권을 새롭게 발간한 바 있다. 하지만 편집과정에서 오탈자가 많고 일부 누락된 부분도 있어서 학문적으로 인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제주도총서 6권을 원래 모습 그대로 영인하거나 복간할

석주명은 자신이 읽은 제주도 관련 논저 1,096종을 제주도 연구를 할 후학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서지학적으로 배열하여 『제주도문헌집』(1949)을 펴냈다. 그는 제주도와 관련해서 총론적 성격 문헌들 42편, 자연부에서는 기상, 해양, 지질광물, 식물, 동물, 곤충 등 제주도의 자연을 6개 분야 433편을, 인문부에서는 언어, 역사, 민속, 지리, 농업, 기타산업, 정치·행정, 사회, 위생, 교육·종교 등 총 11개 분야 599편, 추가분 22편을 수록하고 있다. 특히 그는 제주도 연구에 반드시 필요한 제주도 관계 단행본 26권, 제주도 관계 논문 121편, 제주도를 논급(論及)한 단행본 10권, 제주도를 논급한 논문 26편 등 183편을 추출하여, 제주학 연구자들이 관련문헌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그가 언급한 1,096종의 제주관련 논저들을 수집하여 오늘날 제주학 관련 문헌들을 아카이브화 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석주명의 삶을 규명하기 위한 육필원고와 육필메모, 사진과 영상들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것들을 확보하여 디지털화해야 한다.

3. 석주명 유물의 활용 방안

석주명이 제주의 근대인물 유산으로 지정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발전 공헌자에 대한 기념사업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석주명 기념시설물 설치 및 기념관 건립, 추모사업, 관련자료 수집·조사·연구, 전시·공연 등 다양한 기념사업과 행사개최가 가능하다.

석주명의 유물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석주명이 2년 동안 근무했고, 국가등록문화재 제785호로 지정된 구(舊)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 제주시험장 연구동 건물을 복원하여 그의 삶과 업적을 보여주는 사진, 유품, 논저 등을 전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석주명 유물들 상당 부분이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과 과천국립과학관에서 소장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유물 전시와 관련해서는 두 기관의 협조뿐만 아니라 그들과 차별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석주명 기념사업을 할 경우에는 제주학이나 생약연구소 제주시험장 활동 등과 같이 제주와 관련성이 큰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필요가 있다. 석주명의 유고집 가운데 다음 책들은 지금은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복간할 필요가 있다.

- * 제주도수필(1968), 보진재
- * 제주도곤충상(1970), 보진재
- * 제주도자료집(1971), 보진재
- * 한국산집류의 연구(1972), 보진재
- * 한국산집류분포도(1973), 보진재
- * 한국분위 세계박물관학연표(1992), 신양사

석주명 연구가들의 제언¹⁷⁾도 숙고할 필요가 있다.

석주명의 업적과 정신을 제대로 알리고 그의 삶과 학문적 업적, 뜻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는 제주시험장 연구동 건물을 복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별도의 석주명기념관이 설립되어야 한다. 거기에는 우선 그의 생애를 살필 수 있는 석주명전시실, 그의 제주도시험장 활동을 보여줄 생약연구소실, 그가 수집한 제주도자료를 볼 수 있는 제주문화체험실, 그의 제주방언 연구를 활용한 제주어체험실이 있어야 하고, 그가 세계 공용어인 에스페란토를 보급하기 위해 일생을 바쳤던 것을 감안하여 세계의 여러 언어들과 에스페란토를 경험할 수 있는 에스페란토체험실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그가 세계적인 나비학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세계의 나비를 볼 수 있는 나비표본실과 나비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나비생태관도 구비된다면 많은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학습장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석주명은 세계적인 나비전문가이지만 일제강점기에 발표된 논저들은 대부분은 일본어로 되어 있어서 일반인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조차도 접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일본어로 된 그의 나비채집기와 나비목록들, 그리고 학술적으로 의미 있는 관련 논문들을 번역하고 출간하여 전문가와 일반대중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석주명의 삶과 학문에 나타난 이념과 정신을 현대적 관점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가 오래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치열한 학문적 열정과 성실성, 체계성과 통일성, 주체성과 평등주의, 그리고 지역주의·민족주의·세계주의를 융섭(融攝)하는 태도는 지역과 세계를 아우르며 살아야 하는 오늘날에 더 의미가 있다. 하지만 그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세계적인 나비학자 반열에 올라 이미 생전에 전설적 인물이 됨으로서 그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이뤄지지 못한 측면도 있다. 그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곤충학, 제주어, 한국어, 에스페란토, 제주학, 한국학, 과학사 등 각계 전문가의 학제적 협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석주명이 다양한 학문 분야에 기여한 점을 재평가하면서 그의 뜻과 정신을 선양하고 계승하기 위해서는 석주명연구회 내지는 석주명 학회를 설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석주명은 일찍이 제주도의 자연과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여 제주도총서를 발간하여 세상에 제주도의 가치를 알렸다. 이제 제주도가 나서서 석주명 기념관을 건립하여 그의 학문적 업적을 드러내고, 그의 뜻과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전국적으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명성 있는 ‘석주명’이라는 브랜드를 약초와 아열

17) 『석주명 평전』을 쓴 이병철 선생과 이 논문을 심사한 A심사위원은 제주도에서 석주명 기념사업을 할 경우 석주명의 삶 전반을 다루거나 나비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그가 연구했던 제주학 내지는 제주도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조언을 하고 있다.

대식물을 기반으로 한 1·2차산업, 나비와 제주어를 활용한 2·3차산업, 그리고 그의 제주학 연구를 다양한 생태·문화체험산업에 활용한다면, 제주관광의 품격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VI. 맺음말

석주명은 42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살았고, 학자로 활동한 기간은 20년이 채 안된다. 하지만 나비, 에스페란토, 제주학 분야에 남긴 족적은 넓고도 깊다. 정부는 그의 공로를 인정하여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을 수여했고, 한국과학기술원 한림원은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에 헌정하였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장춘, 이회소 등과 함께 ‘과학기술유공자’로 선정하였다.

석주명은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나비학자’, 자연·인문사회 분야를 망라하여 연구한 ‘우리나라 최초의 통합학자 내지는 융합학자’, 지역주의·민족주의·세계주의를 넘나든 ‘세방주의자(glocalist)’,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업적을 남긴 ‘한국의 르네상스인’, 제주를 잘 알고 사랑했던 ‘제주학의 선구자’ 등으로 불리고 있다. 그는 자신의 전공분야인 나비연구를 심화시키기 위해 인문사회 분야까지 폭넓게 연구하였고, 제주도의 방언과 인구 자료를 분석하면서 자연과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통계적 귀납적 방법을 사용하여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학문융복합을 시도하였다.

그가 제주도의 자연, 방언, 인구, 민속, 역사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했던 이유는 곧 우리나라의 자연, 언어, 사회, 문화의 근원을 밝히고 그 폭을 넓히기 위한 것이다. 그의 제주도 연구는 한국학의 연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지역주의는 민족주의와 연결된다. 하지만 그의 민족주의는 국수적 민족주의가 아닌 평화적 세계주의로 연결된다. 그가 ‘조선적 생물학’을 주창하면서 학문의 주체성을 강조하지만, 그것의 궁극 목적은 민족문화의 다양성을 통해 세계문화의 발전을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가 자국민들끼리는 모국어로, 외국인과는 배우기 쉬운 하나의 국제어로 소통하자는 에스페란토운동을 펼쳤던 이유도 민족평등을 통해 세계평화로 나아가자는 것이었다.

그렇게 볼 때 석주명은 근대인물이지만, 현대에 더 어울리는 시대를 앞서간 인물로 평가된다. 그는 지역주의, 민족주의, 세계주의 어느 한 쪽에 매몰되거나 배척하지 않고 모두를 잘 받아들여 조화를 이뤘다. 다양한 분야에 두루 능통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이념

이나 관점을 녹여내어 화합하려고 했던 그의 학문태도는 학문융복합의 시대이자 지역과 세계를 아우르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던져준다.

석주명은 정규대학이 아닌 고등농림학교를 나왔지만, 노력과 실력으로 세계적인 학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였다. 그는 우리 청소년과 연구자들에게 학력이나 지위보다 노력과 실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모델이다. 그는 우리나라 자연과학계와 인문사회 학계로부터 존경받는 몇 안 되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에 대한 자연과학자와 인문 사회학자들의 학제적 연구는 우리 학계에 서로 소통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는 일제강점기에 평양에서 태어나 우리나라 전 지역을 두루 탐사하여 귀중한 자료를 많이 남겼고, 남북분단으로 갈등이 극에 달하던 한국전쟁 중에 서울에서 희생되었다. 따라서 남북의 학자들이 만나 석주명에 대해 공동연구를 한다면 민족의 화해와 화합에 도움이 될 것이다(윤용택, 2018: 221).

석주명이 근무했던 제주시험장 연구동 건물이 2020년 6월 24일 국가등록문화재 제785호로 공식 지정되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 7월 제주지역의 발전과 도민 복리에 기여한 분의 숭고한 뜻을 연구하고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역발전 공헌자에 대한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를 계기로 전국적·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제주문화 창달에 기여를 한 석주명을 제주의 근대인물유산으로 지정하고, 그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는 기념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융복합의 시대와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석주명기념관이 지어진다면,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온 국민과 세계인이 즐겨 찾는 또 하나의 명소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창석 외, 2000, 『제주 오현(五賢) 조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김태능, 2014, 『제주도사논고』, 제주대학교박물관.
- 문만용, 2012, 「나비분류학에서 인문학까지」, 윤용택 편저, 『학문융복합의 선구자 석주명』, 보고서, 99-136.
- _____, 2018, 「석주명의 한국산나비 3부작」, 『애산학보』 45, 51-80.
- 석주명, 1941, 「南나비傳(1941)」, 『석주명 나비채집 20년 회고록』, 신양사, 43-54.
- _____, 1937a, 「제주도산 접류채집기(1937)」, 윤용택 편저, 『학문융복합의 선구자 석주명』, 보고서, 385-419.
- _____, 1937b, 「제주도의 회상(1937)」, 『제주도자료집』, 보진재, 190-193.
- _____, 1947a, 『제주도방언집』, 서울신문사.
- _____, 1947b, 『조선나비 이름의 유래기』, 백양당.
- _____, 1948a, 「에스페란토론(1948)」, 『석주명 나비채집 20년 회고록』, 신양사, 201-206.
- _____, 1948b, 「국학과 생물학(1948)」, 『석주명 나비채집 20년 회고록』, 신양사, 63-84.
- _____, 1948c, 「한국의 자태(1948)」, 『제주도자료집』, 보진재, 7-8.
- _____, 1948d, 「제주도청론(1948)」, 『제주도자료집』, 보진재, 197-198.
- _____, 1949a, 「교사와 학자(1949)」, 『석주명 나비채집 20년 회고록』, 신양사, 105-108.
- _____, 1949b, 「대학생과 어학공부(1949)」, 홍성조·길경자 편저, 『나비박사 석주명』, 한국에스페란토협회, 102-103.
- _____, 1949c, 「신문기사로 본 해방후 일년간의 제주도(1949)」, 「신문기사로 본 해방후 둘째해의 제주도(1949)」, 「신문기사로 본 해방후 셋째해의 제주도(1949)」, 『석주명 나비채집 20년의 회고록』, 신양사, 179-190.
- _____, 1949d, 『제주도문헌집』, 서울신문사.
- _____, 1949e, 『제주도의 생명조사서-제주도인구론』, 서울신문사.
- _____, 1968, 『제주도수필-제주도의 자연과 인문』, 보진재.
- _____, 1970, 『제주도곤충상』, 보진재.
- _____, 1971, 『제주도자료집』, 보진재.
- _____, 1972, 『한국산접류의 연구』, 보진재.
- _____, 1973, 『한국산접류분포도』, 보진재.
- _____, 1992a, 『석주명 나비채집 20년 회고록』, 신양사.
- _____, 1992b, 『한국본위 세계박물학연표』, 신양사.
- 윤용택, 2012a, 「석주명의 제주학연구의 의의」, 윤용택 편저, 『학문융복합의 선구자 석주명』, 보고서, 289-344.

- _____, 2012b, 「학문융복합의 선구자 석주명」, 『학문융복합의 선구자 석주명』, 보고서.
- _____, 2017, 「석주명의 학문이념에 관한 연구-통재와 융섭의 측면을 중심으로」, 『철학사상문화』 25, 동국대 동서사상연구소, 121-149.
- _____, 2018, 『한국의 르네상스인 석주명』, 궁리.
- _____, 2020, 「석주명이 본 제주문화 속의 몽골적 요소에 대한 재검토」, 『제주도연구』 53, 1-27.
- 윤용택 외, 2012, 『학문융복합의 선구자 석주명』, 보고서.
- 이병철, 2011, 『석주명 평전』, 그물코.
- 이영구, 2018, 「석주명과 에스페란토」, 『애산학보』 45, 291-318.
- 제주신보, 「산악회원들 일단 귀경키로」, 1948년 2월 4일자.
- _____, 「조선의 자태」, 1948년 2월 6일자.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2020, 「영천동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석주명선생 기념관 관련 연구용역(舊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 제주지소 및 제주도시험장 근대역사 경관조성)」, 발간 등록번호 79-6520000-000140-01.
- 제주특별자치도, 2008, 『제주문화상징』, 제주문화예술재단.
- _____, 2020,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발전 공헌자에 대한 기념사업 지원 조례”(제정 2020-07-15, 조례 제2574호).
- 최낙진, 2012, 「석주명의 ‘제주도총서’의 출판학적 의미」, 윤용택 편저, 『학문융복합의 선구자 석주명』, 보고서.
- 한국대학신문, 「단국대 석주명서적.연세대 구수락 등 중요 과학자료 보존, 국가가 지원한다」, 2019년 8월 5일자.
- 홍성조·길경자 편, 2005, 『나비박사 석주명선생』, 한국에스페란토협회.
- 石宙明·高塚豊次, 1932, 「朝鮮球場地方産蝶類目錄」, *Zephyrus*, vol.4[4], 311-317.
- D. M. Seok, 1940, *A Synonymic List of Butterflies of Korea*, Seoul: The Korean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생물종목록 <http://www.kbr.go.kr/stat/ktsnfiledown/downpopup.do>에서 2020.12.1 인출.
- 문화재청 국가유산포털 유네스코등재유산 http://www.heritage.go.kr/heri/html/HtmlPage.do?pg=/unesco/unescoInfo.jsp&pageNo=5_1_1_1 에서 2020.12.1 인출.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문화유산검색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DivView1.do?tabGubun=1&pageNo=1_1_4_0 에서 2020.12.1 인출.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우리지역문화재(제주특별자치도)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RegionList.do?s_ctcd=50&ccbaLcto=00&pageNo=1_1_3_1 에서 2020.12.1 인출.
- 부산과학기술협의회 교육프로그램 fun&FUN과학관 우장춘기념관 <http://www.fobst.org/kor/Edu/Edu020304.php>에서 2021.1.20 인출.

Abstract

A Study on Seok Du-Myeong as a Modern Person Heritage in Jeju*

Yoon, Yong-Taek**

In addition to each region and country, UNESCO has various systems and institutions to preserve and transmit valuable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s. However, according to such a type of heritage classification method, a person who serves as a model for an era or society cannot be designated as a heritage. Those who have contributed to the creation of Jeju culture in academics, education, culture, and art are great assets of the Jeju region. Seok Du-Myeong(1908-1950), known as Dr. Butterfly, is one of the leading scientists in modern Korea. He is called a 'Global butterfly scholar', 'Convergence scholar', 'Glocalist', 'Korean Renaissance man', and 'Pioneer of Jeju studies'. He did not get immersed in or rejected either regionalism, nationalism, or globalism, but accepted and harmonized them all. Not only is he an expert in various fields, but he tried to harmonize by melting different ideologies and viewpoints. In that respect, he can be evaluated as a person who has preceded the times that are more suitable for nowadays. In June 2020, the Jeju Experiment Station of the Herbal Medicine Research Institute of Kyungsung Imperial University, where he served as the director, was officially designated as National Registered Cultural Property No.785. In addition, in July 2020,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enacted the 'Ordinance for Commemoration Project Support for Contributors to Regional Development' in order to study and inherit the noble will of those who have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Jeju region. Taking this opportunity, it is necessary to designate Seok Du-Myeong as a modern person heritage, and to carry out various projects to educate and promote his will and spirit.

Key Words : Seok Du-Myeong, Person Heritage, Academic ideology, Pioneer of Jeju Studies, Commemorative project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2020 scientific promotion program funded by Jeju National University

** Professor, Department of Philosophy, Jeju National University

제주의 근대 인물유산으로서 석주명

교신 : 윤용택 632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E-mail: samsaram@jejunu.ac.kr)

논문투고일 : 2020. 12. 24

심사완료일 : 2021. 01. 20

게재확정일 : 2021. 01. 28